

즐거움을 위한 소설읽기

영국의 소설가 서머셋 모옴은 소설로 뿐 아니라 '읽는 즐거움'을 강조한 도서목록의 선정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즐거움을 주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독서가 아니라고 까지 말하는 그는 "그 많은 세계문학 작품들 가운데 결박이 아닌 것까지 읽으라고 권하는 것은 무리한 주문"이라며 "그것은 마치, 열심이지만 그다지 시간여유가 없는 친구를 안 내해서 옛날 조각품을 진열해 놓은 미술관을 관람하고 돌아다니는 경우와도 같다"고 한다. "나 자신은 그것에 접할 때마다 흥분을 느끼지만, 고대의 조각상에 대해선 친구의 주의를 환기시키려 하지 않고, 오로지 오늘날 남아있는 그리스 황금시대의 뛰어난 작품에 대해서만 그 이해력을 모조리 경주하도록 친구에게 권고하려고 생각하는 경우와도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즐거움을 위한 독서라 해도 아무나 할 수 있거나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또한 모옴의 말이다. 즐겁게 읽는다고 해서 독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의력과 집중력 까지를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모옴은 "적어도 인간에 관한 사실에 흥미를 느끼고 또 찾으려 하는 태도와 능력만은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서 그는, 즐거움과 함께, 그리고 그 즐거움을 위해서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어느 정도의 상상력이 없다면 어떤 소설도 아무런 즐거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에 그의 「독서안내」(Book and You) 머리말에 나오는 '오락을 위한 독서' 부분을 발췌 소개한다. (김정진 역, 탐구당, 1990)

오락을 위한 독서

이 조그만 책은 물론 신통치는 못하다. 그

러나 읽고나서 천박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결코 없으리라고 확신한다.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비평가로서도 아닐 뿐더러-사실 나는 비평가는 아니다. 또 직업 작가로서도 아니다. -만일 직업 작가의 자격으로 쓴다면 문학에 대한 나의 흥미는 아무래도 특수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인간 일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는 평범한 사회인, 즉 보통 사람의 하나로서 집필한 것이다. 어떤 서적을 목록에 수록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인 조건은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까닭은 목록에 게재된 서적이 당신이 꼭 읽어주었으면 하고 바라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미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대학에서 문학을 담당할 교수들이나 그들에게 교육을 받은 비평가들은 지극히 명백하고도 당연한 일로 문제삼으려조차 하지 않는 것처럼 내게는 느껴진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간과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문학사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중요한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오늘날에 와서는 특별히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것을 읽을 필요가 없는 서적이 얼마든지 있다. 현대산업사회에 살면서 직접 자기 자신과 관계가 없는 서적까지 읽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진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다음에 게재하는 서적은 모두 예외없이 누구에게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둔다. 물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고 했지만 그것이 주의력을 전혀 집중시키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다. 무릇 독자란 袖手傍觀하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적어도 인간에 관한 일에 대해서 흥미를 느낄 만

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뿐 아니라, 어느 정도 상상력을 작용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세상에는 나는 소설을 읽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은 정신을 몽땅 중요한 일에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想像上의 사건 따위에 머리를 쓸 여유가 없는 까닭으로 책을 읽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가 일쑤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이 소설을 읽을 겨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일에만 정신이 팔린 나머지 남의 신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또는 상상력이 부족해서 소설에 나타난 사상思想이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작중인물의 기쁨이나 슬픔을 공감할 수 없거나 그 두 가지 가운데 그 원인이 있다. 여하튼 호기심도 없고 동정심도 가질 수 없다면, 어떤 작품이든 재미있게 읽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어떤 책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조건으로서 그 책은 독자에게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뜻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이것은 어떤 특질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밖에도 여러 가지 특질이 생각될 수 있겠지만 이것이야말로 독자의 관심사에 직접 관련되는 특질인 것이다. 내가 추천하는 서적은 일반적으로 보통정도의 흥미를 갖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는 바가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그것은 어떤 서적이든 간에 우리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보편타당성을 갖춘 인간성을 문제삼고 있기 때문이다.

출판저널

통권 제153호 / 1994년 7월 20일 발행

발행인—정진숙
편집인—전병석
인쇄인—이일수
편집위원—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환
편집부장—강철주
기자—정혜옥 이성수
 김중식 배은희
디자인—윤정자
사진—김홍진

업무차장—윤동호
업무·광고—이희천 최병천
 김유희 김동필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타이피아

출판저널—110-190 서울 중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출판저널」은 서평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매호 '독자서평'을 고정란으로 두고 있습니다. 신간 가운데 감명깊었거나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골라 서평 형식으로 정리한 글을 보내 주십시오. 원고 분량은 2백자 원고지 6매 안팎이며 책명과 저·역자명, 출판사명 등을 명기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되며 교료도 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책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금: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생의 마지막 밤과 맞비꿀 사무치는 추억담을 들려다오.”



“극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진실과 거짓의 유희!”

4인의 사형수. 처형은 다음날 새벽. 남겨진 시간은 불과 하룻밤. 국왕 암살 음모에 가담한 죄로 붙잡힌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감옥 사령관의 제안대로 누구라도 한 명이 음모의 배후인물을 밀고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신념과 동지를 배신하는 것. 그들은 서로를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죽음의 공포를 잊기 위해 각자 자기 인생의 에필로그를 시작하는데...

“모두의 예상이 빚나가는 기묘한 대반전!”

〈데카메론〉의 형식, 추리소설의 기법, 치열한 문제의식으로 빚어낸 이탈리아의 거장 제수알도 부팔리노의 화제작! 이 소설 속에는 적어도 여섯 개의 거짓말과 두 개의 절묘한 대반전, 그리고 충격적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하나의 질문이 있다—인생은 과연 살 만한 것인가?

■ 값 4,800원/서점에 있습니다.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
팩시 739-8791

제수알도 부팔리노 장편소설/김석희 옮김

그날 밤의 거짓말

신간!

이탈리아 최고의 문학상 〈스트레가 상〉 수상작!